



보도자료

이재명은
합니다!

보도일시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단체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담당자	김봉겸 선임팀장 / 010-3288-3052	담당자	김잔디 팀원 / 010-4971-0702
사진	0	영상	X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 개최

- “포용적 돌봄국가로 대전환”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한 범보건복지계 총집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포함,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계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 중심의 열린 플랫폼 구성

- 12월 14일(화) 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인사말을 대독하기 위해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는 남인순 상임위원장,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고영인·김원이·서영석·신현영·최종윤·최혜영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각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의 세부 분야별 책임의원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권영세(복지국가실천연대 대외협력위원장)·김윤(서울대의대 교수)·문진영(서강대 교수)·윤종술(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임성규(보편적복지국가포럼 공동대표)·추무진(前의협 회장) 공동위원장과, 김정열(장애인시민정치포럼 대표)·송원찬(보편적복지국가포럼 공동대표)·김건태(광주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부위원장 등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 이날 이재명 대선후보는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의 대독으로 “복지국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앞으로 발표되는 보건복지분야 공약은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공약발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을 위한 경과보고를 하며,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당, 국회의원의 결합체로서 포괄적인 조직을 갖추었다며,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순회를 통해 다양한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복지계와 보건의료계의 연대와

총의를 모으는 열린 플랫폼”이라며, “범보건복지계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꼭 승리한 복지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출범식 말미에는 각 분야의 본부장들의 선창에 따라 ‘공공병원 확충 의료불평등 해소’,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돌봄 강화’,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돌봄종사자 단일임금 및 안전확보’를 구호로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참석한 구성원 외에도 국회의원 정춘숙.강선우.고민정.허종식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유동철(동의대 교수), 조경애(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주진형(강원대의대 교수), 정원오(성공회대 부총장), 홍선미(한신대 교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별, 직능별 관련단체 대표 등 1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첨부자료 1. 출범식 사진 2장.
2. 이재명 대선후보 출범 축사문 1부.
2. 출범 선언문 1부. 끝.

<1. 출범식 사진>



© 남인순 의원실 제공, 출범선언문을 읽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제공, 포용복지국가위원회 퍼포먼스 장면

<2. 이재명 후보 출범식 축사 -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대독>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 축사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주거복지, 보육 그리고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분야를 총망라한 범보건의복지계가 손을 맞잡아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복지국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가는 긴 여정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재정도 확충해 왔지만 여전히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소모적 논쟁도 여전합니다.

복지국가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득보장제도 강화,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보장 확대, 서민 주거권이 보장되는 주거복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등 전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인과 보건의료인의 안전, 적정 처우 보장을 위한 복지시스템 혁신도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포용적 돌봄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강한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뜻깊은 출범식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

<3. 출범 선언문 -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공동·수석부위원장 낭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 선언문

우리는 2년째 코로나19로 인해 공중보건위기와 극심한 청년실업, 자영업·소상공인의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생율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어려운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운 세계 질서가 구축되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의 복지국가 역시 근본적인 변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위한 선별적인 복지제도, 전통적인 표준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 여전히 가족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남아있는 돌봄으로는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소득보장제도의 혁신을 통해서 전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가족부담을 해소하고, 사회주택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실질적 복지국가를 이루어내야 할 산적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인 선도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며 범보건복지계를 아우르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를 결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소득보장 제도를 강화하여 보편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양·질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이루어,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주의 유산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제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잔존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5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부조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서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 부담은 거의 모든 가정에 끼어있는 먹구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여성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돌봄 서비스는 전근대적 가족 부담이나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요양, 영유아 보육, 초등생 돌봄, 장애인 지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일임금제 도입을 통한 돌봄과 사회복지 인력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좋은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하여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아파도 치료비와 생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간병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돌봄독박, 간병살인, 현대판 고려장과 같은 말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만들겠습니다. 간호간병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일하다 건강을 잃지 않아도 되는 나라’, ‘원하는 국민 모두 주치의를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전국민주치의를 도입하고, 공공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국민들이 출생부터 임종까지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간, 계층 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큰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와 중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는 적정규모의 지역공공병원을 확충하여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거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여전히 큰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실손보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변이성 바이러스 출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들의 권리 실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소득, 주거, 건강, 일자리, 이동권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서비스가 통합된 24시간 서비스지원주택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를 개편하여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재활서비스

를 활성화하겠습니다.

5년 전 겨울, 세찬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던 촛불의 명령을 이제는 포용적 돌봄 복지국가의 건설로 완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킬 후보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주거, 장애인, 보건의료 등 범보건의복지계가 연대하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참여자 일동